민원답변서

☐ 민원내용

○ **(민 원 인)** 채서영

○ **(민원제목)** 서초1동 그리고 기타 지역에 대한 제안

○ **(제안요지)** 남부터미널역 4-1, 4-2번 출구 시설물 보완 요청

○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예전에 민원 올렸던, 올해 개포고등학교 1학년인 학생입니다.지금은 그 지역에 살고 있지만 서초1동의 교회를 계속 다니며 교회에 가는 일요일마다 주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동은 제가 살던 곳이기도 하기에 다른 동보다 잘 알고 있고 변화를 더 잘 감지할 수 있습니다.

(중략)

이것까지 구청의 담당범위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남부터미널역 4-1번, 4-2번 출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른 출구와 멀리 떨어진 이 두 출구는 지나는 사람이 매우 적고, 길고 어두컴컴한 지하도가 이어져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에 가장 가까운 출구지만 사람들은 5번 출구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가기 때문에 매우 한산합니다. 몇 가지 안내판도 오래 방치된 듯 옛 디자인이 그대로 남아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례를 들은 적은 없으나 혹시나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유사시에 대피소로서는 유용하겠지만 일상에서는 충분히 위험과 공포를 느낄 수 있습니다. 1997년 IMF 경제위기 전까지 진로 아크리스 백화점의 지하도로 상업적 기능도 하고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상업적 기능을 다시 더할 필요는 없더라도 노후 시설물 교체나 벽화 등으로 개선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민원답변

○ 3호선 남부터미널역 종점부 지하상가(4-1번 출구 포함)는 당시 ㈜진로 종합유통에서 건설하여 1987.05.13.~2008.05.12.까지 20년간 무상사용후 2008.05.13. 서울교통공사로 기부채납된 시설물로 서울교통공사에서는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상가개발을 위하여 전문업체 용역 시행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수차례 실시하였으나 지리적 여건상 유동인구가 적어 사업자 선정이 어려워 지하2,3층 상가는 폐쇄하고 지하1층만 4-1번 통로 이용 고객을 위하여 좌,우 벽체 칸막이 설치 등 시설물을 정비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에도 상가개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 이용에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 4-2번 출입구(E/V포함)는 1999.11.22. 군인공제회와 서초구청이 협약체결하여 군인공제회에서 2004.06월 준공후 서울시로 기부채납하여 현재 서초구청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시설로서 서울교통공사 남부터미널역에서는 본 지하상가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